

안녕하세요. 이사로 출마하는 권선아입니다.

누군가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러나
남의 웃음을 기다릴 것 없습니다.

오늘 부터는 내게 먼저 좋은 웃음, 좋은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
날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런지요.

이 말은 일본의 만담가 가네히라 케노스케가 쓴 <거울은 먼저 웃지
않는다> 의 일부분입니다.

하지만 먼저 웃지 않는 것이 어찌 거울 뿐이겠습니까?

세상도,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내가 웃기 전에는 웃지
않습니다. 내가 웃어야 함께 웃습니다.

저는 KLPGA 모든 회원들이 먼저 웃을 수 있고 행복한 협회가 되
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사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

KLPGA 감사, KLPGA 교육분과위원, 대의원, 생활체육 핸드볼 연합
회 이사, 한국골프대학교 교수의 경험으로 회원님들의 행복한 웃
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과 노력을 할 것 입니다.
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

2016년 3월 11일

작성자:권선아

